창사 66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636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음력 1월 24일)

정부 차원 5·18 진상규명 결국 '미완'으로

●조사위, 직권조사 17건 중 13건 보고서 공개

10건 규명·3건 불능…민간인 사망자 166명 최종 집계

국가폭력 피해 적시…발포명령·암매장 등 쟁점 '후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활동 중 직권으로 조사한 17건 가운데 13건의 보고서를 개별 공개했다.

이로써 1980년 5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이 역사적 사실로 정립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경위 등 핵심 쟁점은 규명하지 못해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위원회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 중 135명 총상…집단학살 5곳

조사위는 지난달 29일 직권조사 과제 17건 중 13건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중 10건은 '규명'으로, 나머지 3건은 '불능' 결정이 난 것들이다.

규명된 과제 대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관한 것들이며 보고서에는 피해 사실이 적시돼 있다.

우선 1980년 5월18-27일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16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망 유형은 총상이 135명(8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 등 둔력 17명, 차량 12명이다.

같은 기간 ▲광주톨게이트 ▲광주교도소 ▲주남마을 ▲송암동 ▲국군광주통합병원 등 5곳에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이로 인해 71명이 사망했고 7명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며 208명이 다쳤다.

민간인 피해 외에도 조사위는 1980년 5월19일 최초의 총상 사망자 등 다수가 시민군이 무장했던 카빈총에 총격 당했다는 내용을 계엄군의 M16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바로잡았다.

◇"전두환 책임" vs "규명 불능"

불능 3건 중 2건은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 소재'와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으로 다른 과제에 비해 중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발포책임자 규명'의 경우 실무진인 조사관들과 최종 결정하는 전원위원회의 의견이 달라 불능으로 결론났다.

앞서 조사위 조사관들은 발포 일자 및 장소별 구분 등을 통해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책임자를 추적하는 '상향식'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조사관들은 '저격수 배치', '민간인 학살' 행위는 '신군부의 불가피한 자위권 발동'이란 항변 논리를 반박하며 집단 발포 등 작전 상황에 대해 전두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잉진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진 이들에 대해 전두환의 귀에 들어가자 교체됐다', '전두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등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실 조사라고 지적했다.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선 기존 진술과 신규 확보 진술의 교차 검증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980년 5월21일 계엄군에게 발령된 '진돗개 하나'가 집단 발포의 실행 체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데도 그 의미를 축소했다며 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 및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행방불명자와 연결되는 암매장 관련 의혹 역시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조사위는 암매장 추정 제보 구역 21곳에서 총 9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검사 결과 행불자와 일치한 이들은 없었다.

▶2면에 계속 /안재영·주성학 기자

Today

전남 인구 180만 붕괴 초읽기 2면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통탄" 12면
광주FC 홈 개막전 완승 16면

진취적 기상·패기 '고싸움놀이' 전통 민속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인 '제41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렸다. 진취적 기상과 패기의 상징인 동부고와 서부고가 시민들의 풍요로움과 건강을 기원하며 힘차게 부딪히고 있다. 이번 고싸움놀이 축제는 당초 정월대보름(2월24일) 전후로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일주일 연기됐었다. /김애리 기자

민주 광주·전남 공천자 명단 속속 확정

총선 D-37

광주 5개 선거구 여론조사 경선 결과 현역 4명 탈락

전남 서동용 현역 첫 컷오프…이개호·권향엽 단수공천

국민의힘 총 16곳 공천 마무리…15% 이상 득표 목표

4·10 총선에 나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본선 진출자 명단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공천=당선'이라는 텃밭 '공식' 때문에 본선보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광주·전남 공천 작업은 현재 1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이 마무리됐다.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가 맞대결을 펼친 광주 동남갑은 정 특보가,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경쟁한 광주 동남을은 안 전 차관이 각각 승리했다.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간 '2인 경선'을 치른 북구갑은 정 변호사가,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결한 북구을은 전 전 행정관이 공천권을 따냈다.

이들 4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는 지역 정가에 큰 충격을 던졌다. 현역 의원들이 모조리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형배 의원, 김성진 전 산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3인 경선'을 펼친 광주 광산을에서는 현역인 민 의원이 승리해 구겨졌던 현역의 체면을 살렸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나머지 ▲서구갑(송갑석·조인철) ▲서구을(양부남·김경만·김광진) ▲광산갑(이용빈·박균택) 등 3개 선거구는 이번주부터 경선 절차가 진행된다.

전남 10개 선거구 중에는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2곳에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각각 단수공천을 확정지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당초 공관위가 이 의장을 단수공천했으나 재심위원회가 단수공천을 바꿔 '이개호·박노원·이석형' 3인 경선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해 파란이 일었다. 그러나 재심위 발표 후 단 이틀 만에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3인 경선'을 기각하고 원래대로 단수공천을 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최고위가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현역인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되고 권 전 비서관이 공천자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광주·전남에서 현역 의원 첫 컷오프라는 아픔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은 앞으로 ▲목포(김원이·배종호) ▲여수갑(주철현·이용주) ▲여수을(김회재·조계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김문수·손훈모) ▲나주·화순(신정훈·손금주·구충곤) ▲고흥·보성·장흥·강진(김승남·문금주) ▲해남·완도·진도(윤재갑·박지원) ▲영암·무안·신안(서삼석·김태성·천경배) 등 8곳에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광주·전남에서의 공천자 명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15%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광주의 경우 ▲동남갑 강현구 전 광주시 건축사협회 회장 ▲동남을 박은식 당 비상대책위원(의사) ▲서구갑 하헌식 조선대 외래교수 ▲서구을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 ▲북구갑 김정명 광주시당 부위원장 ▲북을 양종아 전 광주MBC 아나운서 ▲광산갑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 ▲광산을 안태욱 전 광주교통방송사 사장 등 8곳의 공천을 모두 완료했다.

전남의 경우 10곳 중 ▲목포 윤선웅 목포 새마을문고 이사 ▲여수갑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나주·화순 김종운 나주·화순 당원협의회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 김형주 전 열린민주당 광주시당 회계책임자 ▲해남·완도·진도 곽봉근 중앙당 국책자문위 고문 ▲영암·무안·신안 황두남 전 신안군의원 등 8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모집인원 00명
교육기간 2024년 3월 26일(화) ~ 2024년 12월 종강(연 16회)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4년 3월 15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 (예정)

곽수종 소장 리엔경제연구소
김계훈 교수 전남대의과대학
문달주 교수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재희 원장 민족문화컨텐츠 연구원
오정해 국악인
이승재 영화평론가
이종선 대표 ㈜이미지디자인컨설팅
이창용 미술사
임진모 음악평론가
최윤희 대표 2M커뮤니케이션